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8월 3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두 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열심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변 상 희 -

청년 시절 제 주위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때 저는 “너 나 교회에 잘 다녀!”라는 말로 핀잔을 주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19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고 저희 가정에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저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갔습니다. 그 때 저는 임신 7개월이였습니다.

몸이 힘들고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저는 하혈을 했습니다. 새벽에 급히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할 때까지 하혈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출석하는 교회와 제가 막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의사 선생님께서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의료진이 여럿 동원되어 오랜 시간 큰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또 병원을 옮기려니 무섭고 떨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랜 입원 생활 중에 친밀해진 간호사가 귀뜸하기를, ‘여기 원장님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수술을 잘하시기로 매우 유명한 박사님’이라며 믿고 맡기시라고 하였습니다.

출산 당일에 저는 오후 늦게 수술 순번이 잡혀 있었는데 하혈이 멈추지 않고 상태가 위급하여 제일 먼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수혈할 혈액을 많이 준비하고 모두 긴장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병명은 태반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전치 태반’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이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운을 타고나셨나 봅니다. 이렇게 위중한 상태에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경우는 의사 생활 30년에 처음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기를 꺼낸 다음에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 제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초긴장을 하였는데, 누군가가 와서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가 멈추었다며 이런 일은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경찰관이 되어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새언니의 전도와 도움으로 은혜와진리교회에 출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였을 때부터 성가대의 찬양이 천사들의 합창으로 들렸고,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포근하고 따뜻한 기쁜 감정이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년 후에 아동구역장 직분을, 3년 후에 성인구역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직 두 아들이 어릴 때였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 순종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심성의껏 직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안양시에서 안산시로 이사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든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당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 모든 성도가 성전별로 “할렐루야!” 인사하고 화답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처음에는 잠시 낯선 기분이었지만 곧 익숙해 되었습니다. 이사하자마자 교구장님과 수 구역장님이 심방을 오시고 소속할 구역이 정해져서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사한 집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장만한 집입니다. 넓은 집에서 드리는 은혜로운 구역예배와 기도회를 사모하여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이사한 집입니다.

그 때 큰 아들이 7살, 작은 아들이 5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한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작은 아들이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5살이면 웬만큼 큰 아이로 생각하고 제가 방심을 했었나 봅니다. 이 아들이 침대에서 창가의 난간으로 들어가 방충망 사이로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아들이 검사 결과 다친 곳이 없어서 몇 시간 안정만 취하고는 바로 퇴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이 아이를 앞으로는 잘 돌보겠습니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엄마! 내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뽀에로 아저씨가 풍선을 갖다줘서 그 풍선을 받아 손에 꼭 쥐고 땅에 내려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지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장성하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째 아들이 경찰관 시험을 치를 때였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제가 속한 교구와 봉사하는 국내선교연합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보는 날에 제가 교회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11)는 말씀을 듣고, 결과가 어떠한 결국에 아들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실기시험을 치를 때가 수요일예배를 드리던 날이었는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이 편안해지며 성령께서 그 시간에 아들과 함께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며 확신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면접시험을 앞두었을 때, 대교구장님과 교구장님이 심방을 오셔서 아들이 면접관 마음에 꼭 들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역장으로서, 제1국내선교연합회 갈렙 선교부 부원으로서 전도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감사하게도 지난 번에 전도상을 받고 또 회원들 앞에서 간증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당회장 목사님의 영력 넘치는 권능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경성하여 열심히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상생활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역공과

제3권 (2단원 : 인간의 타락과 구원)

(제13과) 새로운 피조물

- 본문 : 고린도후서 5:17-21, 로마서 12:1-2

• 요절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찬송 : 208장(새찬송가 289장), 493장(새찬송가 436장)

자연인은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 받은 옛 사람의 행습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으므로, 죄를 짓는 데에는 유능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완전히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옛 사람으로만 존재하다가 이 땅을 하직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롬 6:3~5).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1. 성령의 법에 따라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종 노릇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자유한 삶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로는 죄된 욕심을 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외관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야 합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장엄한 예배 의식이나 절차와 같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예배 생활에 힘쓸뿐더러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그것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부단히 애쓸지라도 우리는 번번히 실패만 거듭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 7:24)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고한 성품이 날마다 죽어야 하며, 옛 사람의 정욕을 그 때마다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능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옛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만, 새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정작 복되고 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4~25)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길을 갈 뿐, 영원히 사모해야 할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0~21)는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과 영광된 미래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에게 속한 행실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억복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